

사순절 묵상집
2009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

이 영길 담임목사

종종 목회를 하다보면 깜짝 깜짝 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떻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형제 자매가 되어서 잘 어울리면서 지낼수 있는가 의아한 생각이 들곤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 중에 가장 신비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고 발버둥치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랑의 세계 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가 봅니다. 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들 가슴은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신비한 것인데 더 큰 사랑의 신비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누릴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갈망하는 깊은 신비의 세계를 누릴수 있을까요?

얼마 전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고 김갑성장로님 천국환송 장례 예배를 마친 후였습니다. 장례예배시 고인의 삶을 추억하면서 지금 천국에서는 이러 이러한 삶을 사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대화를 경청하신 후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기억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집단적 기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집단적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처럼 신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더 신비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신비한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신비하게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기억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아니, 더욱 더 신비한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적 기억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세번째 사순절 묵상집을 펴냅니다. 온 교우님들이 각자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함께 집단적 기억을 통하여 신비한 공동체가 되어 가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전 보다 더 신성한 기억을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40일간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더욱 신비한 축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 곧 기억록을 만드시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신 홍보위원회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2월 25일

재의 수요일 아침에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 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마에 재를 얹어 주는 사제의 목소리도
젓빛으로 가라앉은 재의 수요일 아침
꽃 한 송이 없는 제단 앞에서 눈을 감으면
삶은 하나의 시장기임이 문득 새롭습니다

죽어 가는 이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자기의 죽음은 너무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숨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발견에 차츰 무디어 가는
내 마음을 위해서도
오늘은 맑게 울어야겠습니다

먼지 낀 마음의 유리창을
오랫만에 닦아 내며 하늘을 바라보는 겸허한 아침
하물을 자주 바라봄으로써
땅도 사람도 가까워질 수 있음을
새롭게 배웁니다

사랑 없으면 더욱 짐이 되는 일상의 무게와
나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조차
담담히 받아들이는 일
이 또한 기도의 시작임을 깨닫는
재의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혜인 수녀)

목요일/2월 26일

기도하는 사순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2009년 사순절을 앞두고 작년 사순절이 떠오릅니다. 저희 부부는 2007년 사순절에 실패를 겪고 어떤 것
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저희 남편은 사순절 기간 동안 좋아하는 육류를 하나도 먹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했습
니다. 워낙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이라 이런 결심이 걱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에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 생선과 야채로 건디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마음은 저희 남편에게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야채와 생선으로만 요리를 해야 하니 아이디어 고갈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
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도 하며 그렇게 사순절 기간은 지나가고 육류금식을 결심
한 저희 남편의 미션은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문득 저희 부부에게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 사순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결심을 이루는 목적에만 급급한 건 아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기에 앞서, 저희는 마치 무한도
전처럼 무조건 해냈다는 막연한 성취감과 육적인 고통 따위를 불평한 모습이 그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사
순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일종의 승부욕에 집착한 건 아니었는지……
올해 사순절은 아직 무엇을 해볼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와 묵상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송현정 집사)

주님, 모든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 2월 27일

부모같은 주님의 사랑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14)

자녀들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키우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저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기대했습니다.

저의 딸이 태어난지 벌써 일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나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뉘우쳤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 보다,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저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은 웃음과 행복을 받을 때만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함께 해 주는 부모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낍니다.

주님은, 제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셨고 아픈 딸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며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구하면 주셨고, 기도하면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의 부모로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저의 고통을 나누셨듯이, 자녀로서 주님의 그 고통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안은신 집사)

나의 아버지, 주여. 당신의 진정한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토요일 / 2월 28일

저의 일상이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2:24)

주님!!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참혹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잘 압니다.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심보가 드러날까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못 먹어본 적 없고, 갖고 싶은 것 못 가져본 적 없는 저이지만 부디 허락하여 주소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조금 덜 하고, 맛있는 음식 아홉개나 먹고 달랑 하나 안 먹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미흡한 것이지만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또한 저의 일상이 사순절이 되게 하시어 오늘은 하나를 버린 것이 내일은 두개, 모래는 세개, 결국엔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류정용 교우)

거룩한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므낫세의 눈물

사순절은 참된 눈물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 동안 ‘시기냐 눈물이나?’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였는지 살펴보고 참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그 동안 거짓눈물을 흘리지 않았는지, 슬픔과 좌절의 눈물만을 흘리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참 눈물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참 눈물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시기와 질투를 이깁니다. 이 눈물은 믿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눈물은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게 합니다.

이 눈물을 소유한 자는 자기의 동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왜? 이들은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시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의 시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눈물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참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도 잘되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도 잘될 것입니다.

교우여러분, 누가 성자입니까? 므낫세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닐까요?

그 동안 많은 성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성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아씨씨의 성프란시스일줄 압니다. 새들과 대화하고 여우들과 장난을 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들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바로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눈이 멀게 되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습니다. 이웃이 잘못을 행할 때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잘 못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안에서 하나님과 온 이웃과 온 자연세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의 눈물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므낫세의 눈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하실 때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 안에 시기가 솟구쳐 오를 때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웃이 우리를 향하여 시기질투할 때 눈물을 흘리십시오. 끝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들의 눈물 안에 천국이 자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2008년 3월 9일 주일설교 “므낫세의 눈물” 중에서]

(이영길 목사)



사순절 첫째주 월요일 / 3월 2일

조금씩 열리는 작은 기적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세상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미국에 건너왔을 때 이곳 사람들은 무엇이든 풍족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좋은 조건만 가지고 태어난 복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기도 버거운 시절에는 이웃들의 냉대와 알게 모르게 던지는 낯선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웃의 아픔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일하시는 청소부 아저씨를 비롯하여 재활용 용품들을 구하러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분들을 봅니다. 딸의 데이케어에서 만나는 부모들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알고보면 저희와 같이 이 낯선 땅에 아는 사람 하나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 차이와 이해 부족으로 서로 나눌 이야기가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나누면 금세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느새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눕니다. 아이들의 친구가 제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여기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순간 만큼은 제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도, 이 낯선 미국땅에 저희 가족뿐이라는 사실도 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주시며, 저희에게 소망을 안고 바라보시며,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친절을 대할 때마다 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남편은 처음 초대받은 모임에서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받은 모두들 함께 울고 저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홀로 그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야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웃들이 있어서 올 겨울 행복합니다.

주여, 큰 기적이 아닌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조금씩 열리는 작은 기적을 바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보호하심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섭 교우)

Lent Devotional

"I tell you that this man, rather than the other, went home justified before God.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Luke 18:14)

As a young Christian during my youth group years, group of friends and I would get together at the start of lent and ask, "What are you going to give up for the next forty days?" The most popular answer amongst us was everyone devoting to sacrifice watching television. Some even went the extreme of giving up eating meat for forty days.

For many people, lent is a forty day period prior to Easter where they commemorate Jesus' fasting in the wilderness by "giving up something." Today, because we focus so much on what to "give up" for this period, we miss the main point what the purpose of it is.

In the passage of Luke 18:9-14, Jesus tells the story about two opposite people who prayed –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 During Jesus' society, Pharisees were known as people who were good citizens, kept the laws, and lived a moral and upright life. On the other hand, tax collectors were known as people who swindled and intimidated others out of their money. We see that neither the Pharisee nor the tax collector deserved God's forgiveness. The Pharisee didn't because he was conceited and self-righteous – thought he was better than everybody else, thought he was perfect. The tax collector didn't deserve God's forgiveness because of the terrible life he had led. Neither one deserved to be forgiven by God but God forgives people purely out of his mercy. As a result of his undeserved love, God forgives people because Jesus Christ has taken away the sins of the world.

It is because of that sacrifice Jesus made on the cross – cleansing the world of all of its sin, he offers forgiveness to all. In this story, God offered forgiveness to both the Pharisee and the tax collector but only the tax collector received God's

Lord, bring revival to our hearts. Let it begin in me.
May I seek You and serve You with love and humility. Amen.



forgiveness. Why? Because, in God's mercy, He forgives those who humble themselves before Him. Those who stand before God and recognize their sin, recognize their need for God's help receive God's forgiveness. Not because they're earning it by groveling, but because God shows undeserved love to all who are humble and repentant for their sins. Jesus speaks to us through his Word, and he tells us that Lent is a time of self-denial, a time to give up something. But Jesus isn't concerned with us not watching television or not eating meat for a forty day period, but he is concerned with what's going on in our hearts. Lent is that man who stood in the back of the temple, and looked down at the ground, and prayed to God, "Lord, have mercy on me, a sinner." It is a time for us to be like that man, to give up our sinful habits, our sinful attitudes, to stand before God and to ask him to forgive us, to wash our sins away, and to empower us to turn away from our sinful past and to live new lives that are dedicated to God.

It's all about attitude. It's an attitude of honesty and humility, as we confess our sins to God. It is also an attitude of relief and joy, knowing that our sins have been forgiven, that our Lord slate has been wiped clean as we seek to serve our God with our lives.

These next seven weeks is a time for you to look deep into your heart, to think about your life and how you've been living it. What sin are you going to give up for Lent, and for the rest of your life? Jesus will forgive that sin, wash that sin away at the cross. And Jesus promises to empower you to live a new life that glorifies you. May we pray with an attitude of humility and a repentant heart before the Lord as we move into a time of remembering what Christ has done for us all. God Bless.

(John Chung–Youth Group Director)

식구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 26-27)

가족을 생각해 봅니다. 한자어로 가족이란 말 그대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을 떠올려 보면 ‘가족’이란 말 대신 ‘식구’란 말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 어른들이 우리 집에 대해 물으실 때도 “너희 집 가족이 어떻게 되니?”라고 묻기보다는 “너희 집 식구가 어떻게 되니?”라고 묻곤 하였지요. 이제 불과 이삼십 년 사이에 말도 변천하여 점잖게 가족이란 말이 보다는 더 많이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이 식구라는 말이 더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식구의 한자어는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먹는 입’이라 할 수 있는데, 수식어를 추가하여 좀 더 길게 풀어 쓴다면 ‘같이 식사를 매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먹을 것이 부족하던 옛날에 ‘같이 끼니를 매일 같이 때우던 사람들’에서 기인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말로 ‘식술’이란 말이 있는데, 이 단어에는 ‘식구’라는 말에 책임감의 뉘앙스가 덧붙여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식구는 두 명이고 저에게는 한 명의 식술이 있습니다. 저의 식술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처라고도 하고 부인이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식구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수십년 간 똑같은 음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얼굴 모양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기 마련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부부는 많이 닮았습니다. 옷은 모습이라든가 약간 통통한 체형 등 겉모습뿐 아니라, 잠을 많이 잔다든지, 어디 돌아다니기 보다 집 안에서 TV 보기를 좋아한다든지 하는 행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는 십 수년 전 결혼 초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닮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십 년을 보내는 사이 저는 저의 아내와 다른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작가 오육원씨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패러디를 한다면 ‘다른 음식을 권하는 사회’에 제가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다른 음식뿐 아니라 술 마저 강권하는 사회’로 돌변하기도 했답니다.

벌써 1년 반 전, 저희 식구는 ‘같은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사회’ 미국으로 연수를 오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가족적-아니 식구적-일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온 가족이 같이 둘러 앉아 한 냄비에 숟가락질을 하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같은 음식을 먹던 사회였는데, 이제는 순식간에 아빠는 직장에서, 엄마는 친구들과, 애들은 학원에서 따로 식사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사회로 변하였지요. 저희 식구는 여기 미국에서 이제 매일 같이 밥을 지어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며 좀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주 마다 모이는 구역 예배에서 potluck으로 준비되는 식사와 함께 성경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익숙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떠나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음식을 강권하는 사회’에서 같은 음식을 먹기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용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교회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류민희 교우)

저희는 한 식구로서 주님과 같은 음식을 먹고 주님을 알아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주 목요일/3월 5일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5)

우리 손자 Nathan 과 Nana(할머니)와의 대화
"What doggy says?" (강아지가 뭐라고 하나요?)

"멍멍, 멍멍"

"What cats say?" (고양이가 뭐라고 하나요?)

"야옹~ 야옹~"

"What mommy says?"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No!" 하며 Nathan이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왼손 등을 때리는 시늉을 합니다.

1년 10개월 된 우리 손자 Nathan에게 좋은 버릇을 갖도록 하기 위해 혹 좋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우리 손자 손등을 살짝 치면서 "NO!"하는 자기 엄마, 즉 우리 며느리의 모습이 우리 손자 Nathan의 머리에 박힌 모양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Nathan의 엄마처럼 계속 세상의 물결, 혹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No! No!"하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을 마련해 주신건 아닐까요?

"What God says?"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철저히 회개! 무조건 용서! 끝까지 사랑... 등등..."

이렇게 우리 손자 Nathan에게 사순절 얘기를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올해 2009년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김문소 장로)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주 금요일/3월 6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27)

얼마 전에 교회 몇 분과 아이들에 대해 담화를 나눴는데 아이들은 잇 형체나 부모님들이 쓰는 말을 그 뜻을 잘 모르고도 그대로 모방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습기도 했지만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아이들에게 어릴적부터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주고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예배 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훗날 제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아빠, 예배 잘 봤어?" "응, 잘 봤지." "재밌었어?" "응? 재미 있었다니?" "보러 갔으면 본 사람에게 재미가 있어야지!"

어른들끼리는 "예배 본다"의 본 뜻을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표현에 있어 단어선택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본다"면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self-centered) 그의 "만족"이 더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God-centered). 물론 예배를 통해 예배자에게 은혜가 넘친다면 더할 나위없이 감사하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이웃 사랑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표현은 나 위주의 관점에서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에 중점을 두지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는 남 위주의 표현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서로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참된 예배와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한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자신과 가족을 돌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재혁 집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달란트의 분량대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순절 첫째주 토요일/3월 7일

앓음으로써 깨달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중함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소중함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결국 깨닫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모처럼 온 가족이 일찍 일어나 아침운동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여름의 화창한 햇살과 시원하고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집 주위를 가족과 함께 한 조깅은 정말 상쾌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주말 TV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투덜대며 나온 6살난 아들 녀석도, 항상 집안에서 운동 같지 않은 운동만 하던 아내도 기분이 상쾌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족 모두가 만족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희 가족이 집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

보통 주말 아침에 저 혼자 집 주위를 조깅할 때는 집에 아내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귀찮게 무거운 집 열쇠를 운동복 바지에 넣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그만 습관대로 열쇠를 집에 두고 나온 것입니다. 문이 잠긴 사실을 깨달은 저희 가족의 얼굴은 한결같이 상쾌한 아침운동을 즐기던 밝은 모습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처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던 집 열쇠, 항상 곁에 있기에 필요할 때 쓰고 나면 들고 다니기에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던,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던 집 열쇠를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이 열쇠처럼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나의 곁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머리속에 떠올리는 순간 나는 그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기에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을 잊고 감사하는 대신 부족하다고 불평만 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작은 집 열쇠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나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하나, 둘씩 깨달으면서 나는 집 열쇠를 잠시 잃어버린 동안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정민석 교우)

주님, 먼 곳의 큰 것만 찾으려다가 찾지 못하고 슬퍼하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곁에 벌써 다가와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주일/3월 8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주님께서서는 죄악으로 상처투성이인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삶 속에서 가장 기쁜 날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절망뿐이고 어두운 소식뿐이라
모두들 화를 내며
중요하고 싸우고 배신하는데
주님은 나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깨어져 상처뿐인 나의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을
값진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도 중에서]

(용혜원 목사)

사순절 둘째주 월요일/3월 9일

친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15)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신앙 생활을 하던 내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왠지 모르게 “주님”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 했던 기억들, 성경 구절구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역 성경 공부시간에 판지를 걸었던 모습들, 집회와 부흥회에 참석하면서도, 왜 강사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만 초빙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투덜댔던 기억들, 다툼과 반목을 보면서 나 역시 열심히 떠들었던 기억들, 40일 새벽기도 및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잠이 되어 힘들어했던 모습들, 그러면서도 마치고 나면 뿌듯함에 젖어 있다가, 그것을 훈장이나 면죄부인양 여기지 않았던가 하는 자책들,

그렇게, 예수님은 불평과 불만의 시간 속에서도 내게 다가오셨던 것 같습니다. 출석부에 도장 찍어야 하나하며 칭일대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친한 친구처럼 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던 그 모습처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정하균 집사)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주 화요일/ 3월 10일

나의 결심 (My Resolution)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19-20)

On the first night of 2009, each of my family members made a resolution. My resolution is to become a better Christian by praying more, and trying to follow the right path to Jesus Christ. My second resolution is to not show my anger in ways like, crying or big lip, (han-da-bal.) Han-da-bal is when my lip sticks out one inch, don't tell anyone.

But as February began, the promise to the resolution began to fade. I began to forget to pray before I sleep, and I started my habit of showing han-da-bal again. Like a few days ago, at dinner my mom and I had a fight on food. I didn't want to eat, but my mom said, "빨리 먹어!!!" My dad was even on my mom's side saying, "유진아, 엄마말 들어야지..." I made a big han-da-bal that day.

I don't know how Jesus kept his promise in sacrificing his life not for himself, but for us. I see myself easily getting mad and failing again, and again. And I wonder, how did Jesus keep his huge promise? My promise is so tiny compared to his. I want to thank Jesus for dying on the cross for me. I mean like, think about leaving everything you own, everyone you love, for someone you might not even know.

I don't think I would have the courage, the faith and the love for everyone like Jesus has. I felt from these past days that Jesus Christ gave so much for us. Everyday we have so much to thank God and Jesus for. Our friends, who gives us company, our families, growing to be healthy and pure.

(안유진-유년.초등주일학교)

Dear God, Please help me accomplish my goal on anger, and help me become a better and stronger Christian.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about your sacrifice and your love. Amen.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고 서 계시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32)

며칠전, 오바마의 취임에 대한 뉴스를 들으며 아내와 어딘가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다가 대화가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더니, 급기야는 아내로부터 “그럼 당신은 뭘 이루기를 원하면서 사는데?” 라는 질문을 듣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특히 제 나이 또래에, 배우자한테서 오는 경우, 매주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조금은 남아 있을 저에 대한 존경을 아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접해 본게 한참 되었다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음은 (‘못함은’ 이 더 정확하겠지요) 오랫동안 여기저기 공연하고 다녔으니, 언뜻 “뭘, 꼭 이루며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저를 아직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장모님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 접어들었습니다. 한참 후, 빨간 신호등까지 아스라이 건넌 후에, “..... 이제까지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가는 삶이면 좋겠어..” 라고 대답을 하고 보니, 그럴 듯하기도 하고, 아내도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도의 숨을 쉬었지요. (운전중에 이런 대화는 가급적 피하십시오)

그 후 며칠, 자꾸 “그럼 받게 얼마나 되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물 받은 박스 수야 세어 보면 되고, 여기 저기 받은 물질은 헤아릴 수도 있을터인데, 저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많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따금 나를 문득 떠올리고 빙긋 웃어 줄 가족, 친구들의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재고, 갚아 줘야 하나... 내가 알지도 못한 가운데, 배풀어진 도움들은 얼마나 될까? 내 작은 편의 밑에 깔린, 그리고 입고 있는 디자이너 셔츠 실 매듭 매듭마다 맺혀 있는 많은 타인의 노고는 또 얼마나 되나하는 운동권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읽은 책, 즐겨 들은 음악, 자연, 이 모든 즐거움은 그 양을 같이 공유한 모든 사람의 머릿수로 나눠야 할까... 과학자라고, 대부분 시간을 생물도 아닌 돌맹이나 기름 따위 생각하며, 컴퓨터에 머리를 파묻고 보내니, 이 구체적인 받음들을 다 갚고도 더 할려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할까?

더구나, 이것들은 아직도 인간 사회의 틀 안에서 진 빛에 불과하지...내 능력으로는 답을 찾지 못하는, 인지 저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빛은 또 얼마나 되나... 생각할 수록, 루트-9의 번잡함 속에서, 제가 심오한 계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빛을 지고 살아왔군요. 갚을 길은 막연하고요. Martin Scorsese의 영화 속이라면, 이제 곧 저 자신을 시커먼 밤 부두에 떠 있는 배 안에서 발견하겠군요. 의자에 묶여, 두 발은 시멘트 블록에 잠겨 있구요. 아... 그런데 눈을 떠, 앞을 보니, Joe Pesci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고 서 계시군요.... 아니면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저는 그 경솔하고 오만했던 대답을 철회하고, 대신 “일단 받은 것,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다음은 나뉠것 나누고, 주길 노력하며 살자. 하다 하다 못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괜찮다고 그랬어”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을 위한 정답은 아직 찾아야 합니다.

(유승오 집사)

주님, 오늘도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보다는 예수를 통해 이미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되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주 목요일/3월 12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나 내게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서 6:14)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더 알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혜민 교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주 금요일/3월 13일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7:3-4)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그리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은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남들이 하는 모든 것 안에 죄를 발견 합니다. 이웃이 목걸이를 목에 건 것도 죄로 보입니다.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보입니다. 남이 똥똥한 것도 죄로 보입니다. 자기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만 보이기에 결국은 크리스찬 갱이 되어 버립니다. 총칼을 가진 갱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정죄하는 갱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삽은 크리스찬 갱이 되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승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항상 내 오른 손을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

시편 73편이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언제나 죄를 느끼게 됩니다. 이웃의 죄를 그리든지, 나 자신의 죄를 그리든지 항상 누군가의 죄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짐승을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승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 지나간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서
(최선경 권사)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고통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을 생각하며 금식기도와 절제와 회개를,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했는가를 되돌아 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내와 연단의 기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가끔씩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껴져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는 때를 지나곤 합니다. 저도 이럴 땐 2002년 겨울의 어느 날을 떠올리며 지치고 상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이런 인내와 연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날은 열흘 간 외국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날로 겨우 둘이 갓 지난 성빈이를 돌보며 밀린 학교일, 집안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부터 아프기 시작한 성빈이는 열이 너무 높아 다음 날 영아원에 보낼 수가 없어 아는 한국 할머니께 어렵게 부탁하여 오전 강의하는 동안만 맡길 수 있도록 한 후, 밤새 잠도 못 자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며 못다한 강의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준비로 분주한 내게 걱정을 해 주시는 친정 어머니의 전화도 바쁘다는 말로 황급히 끊어 버린 후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허둥대야 하는 내 자신에 대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기를 데리고 주차장에 가보니 지난 밤 내린 폭설로 차는 눈 속에 아예 파 묻혀 있었고 그 눈을 치우며 '하필 왜 이런 때 없는거야...' 하며 출장간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침 전화를 걸어 보스턴 날씨 때문에 어쨌든 오늘 돌아오지 못 할 거라는 그에게 따뜻한 말 대신 "못 오면 어떻게..." 하는 원망의 말을 건넵니다. 거북이 운전을 하며 들어선 도로에 하염없이 늘어난 차들로 나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열 때문에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성빈이는 계속 뒤에서 울어대기만 합니다. 할머니께 버리듯 아기를 맡긴 후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운데, 학교에서 기말고사 과제기간을 넘기고서도 아무 말없는 몇몇 학생들이 생각나며 '외국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어떻게 혼(?)을 내야 할까...' 하는 의심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한 번 화가 난 마음은 쉽게 가라앉기는커녕 지나가 버린 불평까지 떠올리며 나를 시험 속으로 계속 몰고 갔는

데...연구실에 도착하니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시작된 혼자만의 유학 생활, 결혼 후 공부와 병행하던 직장생활 동안에도 울어본 기억이라곤 없는데 오늘따라 지치고 험클어진 나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루실 소망을 믿고 떠나는 유학도 욕심스런 내 자아가 능력보다 더한 것을 바란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엄마도, 아내도, 학자도 아닌 내가 부끄러웠고 이런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분 남지 않은 강의 시간을 남겨두고 기도로 마음을 추스리는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광야로 나가셨던, 40일간의 시련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도 생각났습니다. 이런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고통에서 면제(免除)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를 인내와 믿음으로 지나가도록 돌보시는 분 이시라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주어진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환란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느껴져 잠깐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심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낙심될 때 잠시 마음을 비우고 오래된 영화처럼 천천히 이 날을 회상하며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재은 교우)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시험, 환란, 핍박 속에서도 오직 선으로 인내하고 당신의 소망을 이를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달란트’의 다른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아직 뽕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즐겨 쓰셨던 말씀입니다. 뽕감은 아직 덜 익어서 떫은 맛을 내는 감을 가리킵니다. 단감이든 홍시이든 잘 익은 감은 달콤한 맛과 좋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 익은 감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익지 않은 뽕감을 베어 물면 온 입안이 떫게 되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뽕감을 먹은 사람은 입안에 있는 감을 뱉어 버리는 것은 물론, 남아 있는 부분까지 버리고 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말씀으로 ‘뽕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각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기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더 많이 봉사하고 싶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 하셔서 많은 달란트를 받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될 지 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종보다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되길 바라는 것은, 과연 진실한 섬김의 마음에서부터 생긴 것일까요?

같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16:24)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16:2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달란트’와 가장

비슷한, 아니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은사’ 나 ‘능력’ 이기 이전에, 바로 ‘십자가’ 입니다. 바로 ‘달란트 = 십자가’ 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달란트’란 말을 ‘십자가’로 바꾸어서 기도해 볼까요?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십자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십자가를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 같은 기도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 된 삶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가르칩니다(디모데후서 2:20-21).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기보다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되고 싶어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린 일을 우리 삶에 되새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제 삶을 예수님 지고 가진 십자가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마음에 품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달란트 = 십자가’의 등식이 성립할 때 이어지는 ‘달란트 = 십자가 = 면류관’이라는 또 하나의 등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며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요한 목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도 더 많은 십자가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떨리는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15)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게 잡혀가시던 날,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분을 세 번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자의 배신을 뒤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당신을 세 번 부인한 것을 연상케 하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고 묻고 계신데,
제 귀에는 ‘사랑한다’ 라고 먼저 들립니다.
당연히 제자의 배신에 화가 나서 질책하셔야 할 텐데,
제 눈에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눈빛만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새 생명 주신 주님, 되살아남으로 사랑을 전해 주신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분명 느끼실 수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를 사랑하느냐’ 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보고 싶느냐’ 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본질적으로 질문이기 이전에,
떨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손끝에 살짝 생채기만 나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손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쳐 예수님을 잊고 배신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떨리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당신은 오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세희 교우)

사순절 셋째주 화요일 / 3월 17일

세상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

"베드로가 예수께 여파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태복음 17:4)

1월 말에는 청년1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와 감사를 안고 돌아온 청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수련회의 감동에서 빠져 나오기 쉽지 않아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저 또한 '수련회가 더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삶이 무력해질 때쯤 수련회에 가서 다시 충전하고 돌아오고……아니, 매일매일 수련회에만 있으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아차! 하고 말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난 베드로가 아예 그곳에 머물러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했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던 우리 청년들. 수련회는 정말이지 그들에게 큰 안식과 충전과 감사와 은혜를 안겨주기 충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했던 찬양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충분했던 주님의 말씀들, 눈물과 울부짖음으로 주님과 만났던 기도의 시간들, 성도의 귀한 교제들까지 1분 1초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청년들은 그곳이 그립고 다시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그곳에 영영 두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닌 비전과 임무와 책임들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으로, 취업 준비생들은 열심히 직장을 알아보는 것으로 말입니다. 산 속 깊은 곳이 아닌, 세상 가운데에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우리를 수련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신민영 교우)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곳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셋째주 수요일 / 3월 18일

소외된 자의 친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10)

나만의 추억을 떠올릴 때면 늘 가슴 한쪽 따뜻하게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오른손이 퍼지지 않는, 손오그라든 여자이며, 한쪽 다리는 소아마비로 약간 절고 그 때의 고열로 인한 지능손실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이 부적절해 집에서 쉬는 외로운 친구였다. 그녀의 엄마는 믿음이 없었지만, 딸이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녀를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 중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아마 그때는 동정심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와 한 주 한 주 만나 그녀를 알아가면서 그녀는 점점 나의 상담자이며 나의 수호천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으며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즐겨하며 진심으로 나의 아픔에 동참해 주었다. 그녀에게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이라고 할까, 입으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녀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 나는 그녀에 비해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부족함에 평안하지 못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 했으면서도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녀는 나를 도왔다. 그녀 주위에는 항상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을 통해 정신지체 장애우 시설에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 곳에서도 탁월하게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늘 만져주고 안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녀는 그것을 우리보다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녀가 지체나 정신적인 모든 것이 정상인이었다면 더욱 더 큰 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큰 자로 보이는 자보다 미미한 자로 보이는 자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기차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내 곁을 떠났다.

(전신애 집사)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욕심으로 손을 움켜 쥐지 않게 하시며 넉넉하게 베퉴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게 하시며 준비된 자로서 주님 나라 확장에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셋째주 목요일/3월 19일

Lenten Devotional

"He humbled you by letting you hunger, then by feeding you with manna, with which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were acquainted, in order to make you understand that one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Deuteronomy 8:3)

As I walk through the rain,
bucketfuls of water pouring down
on my huge umbrella that
you reminded me to carry in the morning,
I sing to you, Oh LORD!

As I walk past the neighborhood golf course
I hear the song rustling through the trees
the wind like the bow, running through the leaves, on
the tree tops, making music, a symphony.

In the fragrance of wild chrysanthemums,
bunches of little white petals washed in purple,
swaying in the wind, discreetly
singing, "Look at me, God's handiwork!"

I see you, God.
I hear you, Oh, LORD!
You are always there, walking beside me.

On the white tips of the wings of your angels
carrying my mother and me
in the deep of the night

In the triad of angels
surrounding me left and right,
and above me
I feel your presence.

You are always here
with me even when I hide
in the attractions of the world.
So, I feel your presence and my soul always knows
that you love me and I rest in you, my God, my Father
in Heaven.

(이혜원 집사)

Oh, Lord, My God! Never leave me, please. In Jesus' name. Amen.



사순절 셋째주 금요일/3월 20일

잔소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17)

지금 난 한국에서 온 수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조카와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보내는 동안 지금까지 잘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증의 깊고 높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든 좋아서 흐뭇해 하시던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인간을 보면서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행여 잘못될까 상과 벌은 구분하셔서 잔소리하셨던 하나님, 철없이 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느끼는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끼며 기도와 인내로 한세대, 한세대 자녀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라는 그 이름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픈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새 생명을 잉태하며 수백배의 열매를 맺듯이 나도 하나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첫 씨앗이 되셨듯이 나도 이 길을 성실히 가리라 다짐합니다.

(이선영 장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도 그 분께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까지 내려 놓아야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가운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머리 돌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잔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앞으로 닥쳐 올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두려우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번의 거듭된 기도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이 순종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 자신이 예수님과 겟세마네로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앞장 2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분명 새벽 닭이 울기전에 당신을 세번 부인 할 베드로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겠다고 호언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알미우셨을까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받으실 잔을 거두어 가시길 간구하는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베드로는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잊고 주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저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도 자주 부끄럽고 한심한 저의 베드로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니가 나를 사랑하는냐고. 염치없이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한 마디 꾸짖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품어 주신 크고 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순종이 내 삶에서도 가득 채워져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다음 주님 뵈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광근 집사)

부끄러운 이 모습 품어 주시는 주님.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주일/3월 22일

고난 속에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맞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맞으신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집중하셨습니다. 고난을 맞아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에 이르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자세로 고난을 대할 것을 원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은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 우리가 이 “왜” 라는 질문들에 휩싸이다보면,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 속에서 신앙과 삶이 오히려 방향을 잃고 영적인 침체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맞을 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질문들은 “어떻게” 와 관계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동안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당신의 경륜과 사랑 속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고난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면서 미처 묻지 못했던 “왜” 라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28)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경륜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소기범 목사)

하나님,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며, 내 삶의 고난 속에서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당신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넷째주 월요일/3월 23일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11)

주님께서 겪었던 40일 간의 고난을 묵상해봅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자문하며 점검해봅니다. 주님을 처음 뵈었던 날, 나는 견디기 힘들만큼의 커다란 육신의 고통 중에 있었지요. 신앙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였던 그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수십 번을 반복하는 사이, 잠깐 잠이 드는 듯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남루한 옷차림의 몸체를 보여주시고, 은은히 들리는 응답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순간 “감사합니다” 몇 번을 되뇌이면서 잠이 들었지요. 그날이 지나고 병원에도 다녔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하던 농사일을 계속 하는 중에, 지난날 밤의 비바람에 지쳤던 농작물들이 생기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오이밭을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란 본 모습을 발견했지요. 전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셨던지 녀굴들이 긴 손을 내밀어 서로를 꼭 잡고 머리를 끌어 올리는 것을 보며 ‘이것이 사랑의 참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것은 아마도 세상 속의 인간관계에서 희노애락이 오가는 번뇌에서 참 진리의 사랑을 한포기 식물에게 찾아볼 수 있었던 감회의 눈물이었겠지요.

사랑의 주님, 이번 사순절의 나날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처음 시작부터 사랑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장까지 사랑을 가르치고 있건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디를 헤메고 있는 걸까요?

(주정대 집사)

주님, 공짜로 받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건만, 그 은혜의 생수가 어디로 흘러 나가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내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각성해보는 뜻깊고 소중한 사순절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번에 (Once for All)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15]

제가 글을 쓰는 시점은 성탄을 지난 2009년도 1월의 겨울입니다. 저의 부족한 점들을, 우리의 죄성을 덮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처럼 하얀 눈이 창밖에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성탄절 무렵 저는 선물 준비를 위해 연례 행사처럼 집 근처의 쇼펍몰에 들렀습니다. 선물가게 안을 기웃거리던 중 특별히 눈에 띄는 장식조각 시리즈가 있었는데, “스노우 베이비스 (Snow Babies)” 라는 이름이 붙은 조각품들이었습니다. 작은 조각들 속에 나타난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생동감이 있던지 누군가에게는 꼭 선물하고 싶어 한참을 들여다 보았는데, 조각 시리즈의 작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의 행복에 들뜨는 “마술적인 (magical)” 어린시절의 모습들을 포착하고자 애썼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각품들에 표현된 아이의 모습들이 겨울의 활동을 포착한 것이기에 오래 두고 볼수록 좋은 지인들의 선물로는 반겨질 리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한 후 빈손으로 선물가게를 나오면서, 어른이면 누구나 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동심으로 돌아가자” 는 말도 있고, 누구나 한번쯤은 삶의 무게가 힘들어 아이로만 머물고 싶은 “피터팬 신드롬” 도 겪는가 봅니다.

쇼펍몰을 빠져나오며 그동안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힘들어 하던 일들은 대단한 것들이 아닌 어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평범한 일상입니다. 부모님은 늘 사랑으로 바라봐주실 따름이지만 한해, 두해, 연세가 들어가심을 지켜보며, 마음을 아프게 헤드릴까봐 괜한 살얼음을 걷던 일, 한살 두살 스스로의 나이가 들어갈 때,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도 철없이 행동하면 안되리라 생각했던 일, 그리고 매일 매일 나 자신의 한계와 싸우던 일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 별 뜻없이 펼

이 겨울,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다시 찾은 기쁨으로, 그리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서로 서로를 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쳐 든 성경을 통해 주님은 짧고도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에 한에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미 “주를 사랑하는 자” 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once for all) 이루신 구원을 저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고, 그 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데, 저는 늘 그 분의 사랑을 잊고 자녀라기 보다는 계약직 직원인 양, 매일같이 저를 주님께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분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는데 그 분은 시원치 않으셨는지 저는 며칠 뒤 참가한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나흘 연속, 귀가 시리도록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분은 그렇게 유머감각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또 그 분은 강한 메시지를 듣고도 또다시 일상에서 회의할 저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찾기 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의식했던 일, 그러기에 어찌면 더 이웃의 아픔에 마음의 눈을 닫았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현주 집사)



그 언덕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의 어느 날, 부은 눈으로 일어나 시리얼을 먹는 등 마는 등, 순가락으로 우유 사이를 헤집다가 이내 어제 읽다만 아티클을 집어 들었다. 비몽사몽간 글 간을 헤매다, 문득 창 밖에서 나는 하얀 소리에, 마음 속 고이 쌓아 둔 일곱 살짜리 여자 아이가 눈 사이를 헤치고 집으로 들어 선다.

“할무이, 나 피아노 학원 땀겨왔다. 오매 추운거. 나 손 시럽고 배고픈디”

“응, 이제 곧 다 되야. 거그 김치랑 놓고 수저랑 놓아라잉”

아이가 부지런히 수저며 것가락이며를 상에 늘어 놓고 하는 사이, 달각, 가스레인지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할매가 뒤뚱거리며 냄비를 가지고 온다. 활처럼 굽은 할매 등 때문에, 냄비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땅에 닿을 듯해, 얼른 아이가 달려가 냄비를 받아 온다. 기도를 하는 등 마는 등, 잘 먹겠습니다고 하는 등 마는 등, 아이는 벌써 반쯤은 시어버린 김장김치랑 갈국수를 비벼가며 먹는다. 손수 밀대로 밀어낸, 두껍고, 그리고 또, 서로 엉겨 붙어 설익은 갈국수를, 먼 사 이 떨치며 머리며, 몸통이며를 연신 골라내고는 잘도 먹는다. 상다리 걸 냄비에는 할매가 그 등을 해 가지고 어렵사리 밀 가루 반죽을 하고, 치대어 썰어내, 이육고 의자에 올라가 끓여 낸 갈국수가 그득하다. 회뿐엔 국물 속 겹겹이 층진 면발 처럼, Holden Street에 눈이 소복이 쌓여간다. 쌓여가는 눈 사이로, 할매의 굽은 등을 오르는 사랑의 사람이 보인다.

주님, 주님이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 주님의 고난을 상징할 뿐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의 그 최고점을 상징하는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붙들어 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저희를 섬겨 주고, 사랑을 부어 주는 이들을 통해 좀 더 생생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현현(顯現)과도 같은 이들의 대열을 따라, 오늘, 지금, 이 시간(Here & Now)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주희 교우)

주님 모습 닮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이들의 눈 높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17)

저희 성민이와 수민이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성민이는 5학년 11살 남자아이이고, 수민이는 2학년 8살 여자아이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3년 반이 조금 넘었고, 교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저의 질문과 아이들의 대답입니다.

1. 엄마 : 예수님은 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성민 :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려고 돌아가셨다고 배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우리를 자녀로 아주 아끼는 존재로 여겨야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려고요.

수민 :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려고. 죄는 착한 사람도 조금씩 다 있지만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2. 엄마 :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민 :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죄가 씻긴다 생각하는데, 그냥 하는 ‘제발 날 용서해 주세요’ 보다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응급처치처럼 죄를 씻어주시기는 하지만, 자기의 죄를 밝히고 용서를 빌면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 같아요.

수민 : 진심을 말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3. 엄마 :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성민 : 공부도 잘하고, 목표를 세워서 이루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돕고, 죄 적게 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수민 : 착하게 지내면서 매일 기도하고, 오빠가 약 올려도 화내지 않고, 좋은 말로 하지 말라고 할래요.

조금은 교회에서 배운 주입된 것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연희 집사)

아이들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까지도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심을 믿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소망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주 금요일/3월 27일

생명의 물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26, 공동번역)

보스톤 한인교회 (담임: 이영길 목사) 상록 기도가회가 썩든지 오는 4월로 꼭 열 살이 됩니다. 지난 1월 31일 김갑성 장로님의 소천은 박병덕 집사님(2007년 12월), 강성유 장로님(2008년 4월)의 소천에 이어 세 번째 유명을 달리 하신 것입니다. 하면 상록 기도가회 회원들은 줄서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회원 자격이 65세 이상이기도 하지만, 맺는 말을 앞세우면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으로 세상에 생명을 뿌리다 잡드는 사람들이 상록 기도가회 회원”들입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을 다해 편히 잡드는 사람들. “늘 푸르다(Ever-Green)”는 말의 뜻을 지닌 상록(常綠)의 “常”자는 “수건(巾)”과 “록(綠)”자는 “물(水)”이 말 뜻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수건은 예수님의 새 계명 중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사랑만큼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신분증이 수건입니다. 이 수건 없으면, 안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13:4-17) 이 수건이 겸손의 상징인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선한 일만 잘 하시고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십니다. 겸손, 이 겸손이 씨앗이어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겸손이 있으면 항상 기쁩니다. “상상환희(常常歡喜: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6)”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십자가의 기도가 항상 기쁨의 바탕입니다. “상록기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록(錄) 자에 물(水)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물로 덮혔었고(창 1:6), 녹색 풀(Green plants)을 모든 생명의 양식(창 1:30)으로 주셨으며, 에덴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푸른 색이었으며, 따라서 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 (요 4:14)”. 창세 때의 생명나무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강 (계 22장)”으로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190장)”으로 찬송 드리는 까닭이 이 물과 피를 마신 사람이야 “무덤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요 6:28)”사람들이 될 수 있어서.

(신영각 집사)

상록 기도 회원들은 잠자는 것을 믿게 하소서. 무덤에서도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주 토요일/3월 28일

천국 생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태복음 5:3)

2008년 11월 10일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아주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것이다. 2남 3녀중 특별히 큰 딸인 아내 (전신애 집사)를 가장 사랑하셨고 그 덕에 우리 가족 모두 어느 형제 가족보다 사랑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더 컸다. 목사님이셨던 장인어른은 치매로 3년을 고생하시다 결국은 nursing home에 가셨고, 우리는 금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를 알아보시지 못 하는 장인을 뵈고 더욱 충격이 컸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평생을 사셨던 장인을 회상하며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제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탈한 마음과 함께 삶의 의욕이 없어졌는데, 다음 날 밤 딸(동윤)이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천국행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곳에서 행복해 하시며 반갑게 맞이하시는 외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어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생활의 시작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다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는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꿈에서나 보게되는 천국이 아니라 현실에서 천국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 갈 수는 없을까?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제시하고 계시다. 성경에서 인생의 정의가 수고와 고생뿐이라 했는데 항상 우리곁에 계시고 천국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순간순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해 본다.

(이원걸 집사)

나 눈물 흘리며 험한 길 지날 때 내 힘이 되신 주 날 인도하시네.
그 영광집 나 있을 곳 천국을 예비하셨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 / 3월 29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그분은 거기서 세 시간 동안 죽음을 향해 가셨다. 그분은 두 남자 사이에서 죽으셨다. 둘 중 하나가 다른 한사람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41)

예수님은 죽기까지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다. 그분의 몸은 완전히 탈진되었고, 그분은 친구들과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으셨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은 자신을 내어 주사 우리를 위한 선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나무에 못박혀서 돌아가실 때에도 비통함이나 복수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그분은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해졌다. 완벽하게 무죄하신 그분, 죄와 죄책과 수치심이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이 무시되지 못하도록 극도로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생명으로 가는 문이자 새로운 사립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중에서

(헨리 나우웬)

사순절 다섯째주 월요일 / 3월 30일

기적

그때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12:38, 공동번역)

지난 4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작은 수정란이 태아로 성장하여 신생아로 분만되는 과정”에 동행하면서, 기적과 같이 탄생되는 생명의 신비함에 환희와 전율을 느끼며 겸허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미세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세포분열과 배아의 분리과정을 통하여 우리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을 형성합니다. 이 모든 조직과 기관은 크기와 부피와 기능이 자라고 완성되어, 진통과 분만의 인내와 고통을 통하여, 우주에 소중한 한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기적과 같이 탄생된 소우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움직이는 심장의 박동, 중단없는 호흡,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순간 기적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미움을 사랑으로, 분열을 조화로, 어두움을 밝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 속에서 탄생되고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너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말씀 속에 살면, 나에겐 네가 있기 때문에 너에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며, 희망적이고 풍성하며, 사랑스러운 세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강길원 장로)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화요일/3월 31일

아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사랑이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려고 하지만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아이들은 질색을 합니다. 좀 더 크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들 대신에 죽어야 한다면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짐작해 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사순절을 통해서 돌이켜봅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서, 숙제는 언제나 할거냐?고 묻는 아빠에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면서, 언제나 아빠 마음을 이해할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순절에 아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거냐?” 고...

(김태만 집사)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일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수요일/4월 1일

50불 어치의 사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2)

5살 난 아이가 늦게 퇴근하는 아빠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아빠가 오셨고 그 아이는 아빠에게 느닷없이 묻습니다. 아빠는 시간당 얼마를 받으며 일을 하느냐고... 피곤에 지친 아빠는 네가 알 바가 아니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계속 조릅니다. 지친 아빠는 “그래, 시간당 50불을 받는다” 한마디 내어 뱉고, 아이는 “오” 한마디 소리를 내며 머리를 숙인채 서있더니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25불 만 빌려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에 아빠는 화가 더 납니다. “네가 그 돈으로 쓸모없는 장난감이나 살려는 것이라면 어림없는 소리” 라고.. 아이는 시무룩해 저서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흐른후 아빠는 이 아이가 무엇에 쓰려고 돈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아이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25불의 돈을 주며 묻습니다. “이 돈을 무엇에 쓰려고 그러니?” 아이는 얼굴에 함지박 웃음을 지으며 베개 밑에서 구겨진 돈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젠 됐어요. 50불이 되었으니... 아빠 제가 한시간의 일당을 드릴테니 내일은 일찍 들어오셔서 나랑 함께 저녁 먹으며 놀아 주세요...”

며칠전 저는 아버님을 하나님께 돌려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집에 놀러 오는것을 늘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러한 날 들은 늘 잔치집과 같이 시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부엌에는 온갖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를 늘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 놓으셨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큰 기둥이 되셨고, 의지할 마음의 안식처 이셨습니다. 이제는 그러하셨던 아버님이 나의 곁에는 더 이상 계시지는 않으나, 그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늘 기다리시고,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시나, 우리가 그의 집에 가지 않으며, 바쁨을 핑계로 그의 베품을 받아드리지 못하며, 늘 문을 열어 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일에 너무 바쁜 우리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원하시길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50불 어치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줄테니 나의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하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지 않으련?”

(김한나 집사)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시며, 평안의 원천이요 영원한 안식처 이십니다. 아멘.



규정대로 지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자연 재해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2005년 여름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카트리나는 정말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남겼고 그 피해의 중심지였던 세인트 루이스는 아직까지 예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 13년 전인 1992년 여름에는 카트리나와 버금가는 강도의 허리케인 엔드루가 플로리다 주 남부의 홈스테드라는 지역을 초토화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는 제가 학업을 위해 몇년 간 머물렀던 지역이었고, 특히 홈스테드라는 곳은 제가 출석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의 사업체가 자리한 곳이기도해서 염려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천호의 가옥이 파괴되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폐허의 현장에 집 한채가 기초 위에 굳건이 서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집주인에게 어떻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폭풍의 현장에서 다른 집들과 달리 이 집만이 견재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직접 지었지요. 이 집을 지을 때 플로리다 주의 건축규정에 따라 지었습니다. 규정이 지붕의 버팀목을 2” x 6” 로 하라하면 그대로 2” x6” 의 버팀목을 썼습니다. 규정대로 지으면 허리케인도 견딘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삶의 모든 고통과 시험과 유희와 같은 문제로부터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 삶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따라 말씀의 규정대로 삶의 집을 지은 사람은 엄청난 시련의 비가 내리고, 역경의 폭풍이 불어와도, 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의 순종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어떤 허리케인 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이 땅에서 몸소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분의 온전한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역경은 언제나 찾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기초로하여 그 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서 연단되어 더 굳세어진 인격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한 주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법을 따라 세워져가고 있습니까?

(홍동욱 장로)

주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규정대로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금요일 / 4월 3일

천국을 소유한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15)

어린 시절,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왜 미국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국사람으로 태어났을까 하고 나의 출생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 요인은 국토가 작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신체가 작다는 것,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 등등의 이유를 들어 나의 출생이 불만족스러워 괴로워 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저의 가족들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어릴적 꿈이 이루어진겁니다.

저뿐 아니라 제 아이들과 남편까지도 미국에 살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불평도, 불만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이나 희망의 마음 또한 없습니다. 이미 오고 싶어하던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가까이 감당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여 마음에 얻은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황옥란 집사)

주님, 저희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게하소서.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토요일 / 4월 4일

나에게 주신 사명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31)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롯유다, 빌라도이겠지만, 그 외에서 위에 구절을 보며 알게 된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와야 할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은 큰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저의 삶속에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그 반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김상기 집사)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집사, 부모, 교사, etc)의 직분을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종려주일/4월 5일

또 다시 사월이면

겻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
어느 한 사람의 위로도 없는
고독한 그 밤의 번민과 눈물은 참으로 값있더이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끝내 가득한 독배를 받았나이다.
쓸개 탄 포도주와 신 포도주
그보다 더한 능멸과
쓰디쓴 눈물의 잔을 받았나이다.

닭 울기 전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은 삼십에 예수를 팔고 목을 메던 유다는
어느 시대에나 살았던 죄인
지금껏 우리들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더이다.

우리가 죽인 예수
죄 없이 죄인되어 창과 칼을 받으심이어
기억해야 하리.

홍포와 갈대와 침배알음과 비아냥거림
천만 근의 십자가와 내리치던 망치와 녹슨 못과
고통 가득한 주님의 눈동자를,
끌고다 언덕에서 이날토록 울부짖는

참담한 바람의 소릴 들어야 하리.

은총으로 빛나는 먼류관
가시마다 사랑의 깊이로 깊게 박히어
오늘토록 보혈 흘리시는 예수
그 고통을 헤아리는 자는
주님의 목숨 안에서 다시 살리라고
눈부신 영광도 함께 있으리라고.
한번의 죽음으로 수천, 수수만 번의 부활
세상 죄인 모두의 가슴마다 부활하시는 이여.

또다시 사월이면
의로운 목숨들은 꽃이 됩니다.
그날의 선혈을 머금은 땅기운에
더욱더 붉어지는 꽃잎과리

진리의 횃불로 활활 타오르는 생명이기까지
참으로 기꺼이 견디시던
영원히 스러지지 않는
부활의 십자가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민 문학 2] 중에서...

(시인 한혜영)

고난주간 월요일/4월 6일

눈물의 종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등 모두가 최고의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섯 살까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가장 친한 친구는 백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백인 친구의 어머니가 킹 목사에게 와서 이젠 더이상 자기 아들과 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어머니에게 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히 모든 것을 설명한 후 눈물을 흘리며 말을 끝맺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귀한 인간이야. 우리는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지만 우리는 참으로 귀한 인간이야.” 이 말이 킹 목사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는 평생 동안 흑인은 ‘참으로 귀한 인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합니다.

마틴 루터 킹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친 어머니의 눈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은 연약한 킹 목사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눈물을 흘립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눈물, 인간의 영혼을 강타하는 눈물, 이와 같은 귀한 눈물을 여러분이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 흘리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1995년 7월 16일 설교말씀 [눈물의 종교] 중에서...

(이영길 목사)

365일,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꿀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꿀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마니옆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질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건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1978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왜 부활절은 1년 중 하루인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기다려야하는 사순절은 40일이나 될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말 그대로 ‘항상’ 에는 당연히 사순절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주변에 깔린 슬픔을 보고 듣기만해도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슬픔과 기쁨을 골똥히 생각하다보니, 예전에 즐겨있던 읽던 시가 떠올랐다.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80년 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슬픔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됨을 슬픔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음을… 제대로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라고 이해했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처럼 슬픔을 이해하고, 슬픔을 감싸 안을 때 단단한 슬픔의 껍질 안에 갇혀있던 기쁨의 새순이 돌아남을 하루하루 배워가기 때문이 아닐까?
 올해는 사순절의 슬픔 가운데 단단히 자리한 기쁨의 용이를 느끼면서 365일,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김동규 집사)

돌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 (마가복음 16:1-6)

미니트맨 트레일이다.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계절을 즐긴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하고,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제법 먼 길을 따라, 돌담이 일정한 키에 무너지지 않고 줄서 있으며, 숲과 어루러져 보기가 아주 좋다.

자연적으로 쌓았다. 화강암이라 짐작한다. 생긴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아귀를 잘 맞추어 쌓아 놓았다. 가지런히 쌓았다. 하나 하나 쉽지 않게 쌓았다. 깎이지 않았으며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다. 생각하고 쌓은 돌담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틈새는 있다. 시멘트나 흙으로 빈 공간을 메우지 않았기에 하는 말이다. 이 틈새로 바람이 통하고, 다람쥐들이 들락거린다. 이런 틈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쌓은 돌담은 무너지지 않고 삼백년을 견디어 왔다. 화약 냄새를 맡았으며, 사계절의 신비로움을 보았고, 세월을 견디어 왔다. 개별의 돌들은 서로 서로 부동켜 안고 비바람을 맞았다.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굳건히 서있다. 가지런히 서서 숲처럼 당당하다. 미니트맨 트레일을 따라 숲과 길을 경계하는 허리높이의 돌담을 말한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돌담의 자연석 돌들이다. 체모양 각각의 작고, 크고, 둥글고, 각진 돌들이 서로 서로 맞물려 있으며, 열싸 안고 있다. 그 돌들은 부동켜 안고 있다. 그리고 돌담을 만들었다. 아주 깊고도 긴 돌담이다. 하지만, 빈 틈새를 여전히 시멘트로 바르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통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다. 성령의 힘으로 굳건하다. 이 돌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 되었고, 무너지지 않는 그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아져 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돌담을 넓히고 더 깊게 쌓아 나아가는 때이다. 어린 돌도, 나이든 돌들도 서로 서로 맞물려 담을 이루고, 쌓아 간다. 그리고 큰 돌이 되어 간다. 삼세대의 돌담이다. 돌담의 큰돌 교회인거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무덤을 든든히 막는 큰 돌이며, 부활의 아침에 치워 질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살아 있는 증인이 된다. 오십년 이상을 쌓아온 돌담쌓기 작업은 그래서 아직도 계속 된다.

주님, 우리에게 큰 돌이 치워진 빈무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돌담을 쌓는 사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담이 넓혀지고, 길어짐을 믿습니다. 삼세대가 같이 부동켜 안고 있게 하심에 감사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함을 감사합니다. 비어 있는 틈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담이 되고, 큰 돌이 되게 하심을 감사 합니다.

(김화옥 집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4월 9일

침묵의 소리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34)

10살짜리 한 소녀가 병실에 누워있는 아빠 옆에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오랜 시일동안 암으로 투병하다 암 말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사랑하는 딸을 부른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 입원해 계시던 아빠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 어린 딸은 흥분되고 신나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가 따뜻한 말로 반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달리 아빠는 오랫동안 만난 그 딸을 그저 바라만 볼 뿐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은채 침묵합니다. 한참 그 침묵이 흐른 후 실망에 가득찬 딸은 병실을 떠나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왜, 나에게 반갑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실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된 후에야 이 딸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처절한 고통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아빠의 침묵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침묵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후에야 비로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는 깊은 충격과 상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처했을 때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채 침묵으로 대신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더 깊은 고통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때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상관하고 계시지 않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너무나 큰 사랑으로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삶의 고통 가운데서 “날 저버리신 것은 아닐까?” 고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더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을 침묵의 소리로 들려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윤경문 목사)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들리는 깊은 사랑의 소리를, 이웃의 침묵 가운데 들리는 깊은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아멘.



성 금요일/4월 10일

고난일의 묵상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마가복음 15:24)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서술은 이렇듯 짧고 간단합니다. 망치소리도 없고, 울부짖는 소리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 못박고’ 그 순간의 고통을 담아내기에는 언어가 부족해서일까요. 그 순간의 고난을 담아내는 무심한 언어가 이렇듯 짧아서 서럽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에 대한 서술도 이렇게 짧고 간단합니다. 일체의 설명과 해석과 주석을 생략하고 그저 “다 이루었다.” 오늘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것으로 인하여 빛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단순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는 길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둘러서 길게 대답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참 소망되시는 예수님께 번잡한 설명과 난삽한 언어를 모두 물리치고 그저 한 마디로 짧고 단순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지신 십자가는 지혜를 바라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같아 보이며, 이적을 바라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일지라도(고전 1:22) 진리를 바라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므로 미련해 보여도 거리낌을 당하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박관수 교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성 토요일 / 4월 11일

고통은 예수님의 입맞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은 결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이 사용만 잘 하면,

특히 당신이 그 고통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봉헌했을 때는

크나큰 사랑의 수단이 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나누어진 고통은

굉장한 선물이 되며 그것은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인

은총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고통, 아픔, 슬픔, 모멸, 외로움 등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입맞춤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입 맞출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항상

부활의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꼈을 때는

이제 다가올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당신을

슬픔으로 채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잊어버릴 만큼

큰 슬픔이 당신의 마음을

결코 채우지 않게 하십시오.

[작은 몸짓으로 이 사랑을] 중에서

(마더 테레사)

부활주일 / 4월 12일

부활, 그 영광의 아침

저 광야의 메마른 바람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도,

거친 숨소리 토하며 갈가리 찢어지고

주님 잃은 순례객의 피 맺힌 가슴도,

산산이,

산산이 부서져 꽃비처럼 그리움만 날리던 날.

주님 그리워

주님 보고파

더는 못 참아

향유 준비하여 아리마대 돌무덤을 찾은 여인들.

아, 아 그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한

순백의 영체(靈體)는 무엇의 진실이며

무엇의 의미란 말입니까?

별도 숨어버린 적막한 하늘,

죽음 같이 흐르는 침묵,

님이 가고 없는 슬픔의 동산 이 돌무덤에

한 줄기 햇살처럼 영롱한 그 빛살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이여라.

바로 당신의 눈-부-신-부-활.

늘 “죽어야 사는 법”을 잔잔한 언어로 깨우쳐 주시던 주님!

십자가의 참혹한 형벌을 당당히 받아

사망의 어둠까지 내려가셨다가

상처로 얼룩진 육육의 아픔 떨쳐내고

영체도 환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정녕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신비요

어둠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이 벽찬 감격, 이 승리의 영광으로 인하여

성경에 얼굴을 묻고 그만 울어버렸소.

다시 사신 주님을 보며 기쁨에 웃었소

견잡을 수 없는 희열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소.

[오늘의 크리스찬문학] 2003 봄호

(향로 선중관)



보스톤 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 617.739.2663 www.kcboston.org